

‘근대적 지식인 되기’를 향한 욕망의 서사

— 김내성 추리소설에 나타난 탐정 유불란의 정체 —

최승연*

1. 김내성의 추리소설과 유불란
2. 유불란의 탄생: ‘취미’에서 ‘직업’으로
 - 2-1. 탄생과 갱생
 - 2-2. 과학과 이성, 그리고 연애
3. 유불란과 아이들: 대문자 아버지와 새로운 국민
 - 3-1. 인자한 아저씨=보호자, 해결사
 - 3-2. ‘국민’으로 호명하는 주체
4. 유불란의 현실: 의사-제국주체로서 살아가기
 - 4-1. 아끼아마의 쌍생아
 - 4-2. 경계와 구획짓기
5. 유불란의 죽음과 추리소설과의 결별

국문요약

김내성은 자신의 추리소설에서 유불란이라는 캐릭터를 흥미롭게 창조했다. 프랑스의 추리소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을 일본식으로 음차한 탐정 유불란은, 김내성의 본격 추리소설 계열의 다수에서 등장하며 다중적인 정체성을 보여준다. 조선에 탐정이 부재했던 당시 현실은 김내성에게 유불란이라는 캐릭터 창조를 위해 영미 소설에 등장하는 초월적 탐정 모델을 일차적으로 고려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근거로 활동하는 탐정상을 고민하게도 만들었다. 따라서 유불란은 태생부터 혼종적인 탐정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김내성의 작품에서 애초에 유불란은 변장 취미를 갖고 연애를 즐기는 르블랑의 루팡과도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를 덧입은 그의 정체가 가장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불란은 점차 당시의 현실과 접속하며 일본 제국의 대리자와 같은 면모를 보인다. 대문자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좋은 일본인’으로 교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연구교수

육하고 계몽하던 유불란과, 의사-제국주체로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상상된 블록을 구체화하기 위해 스파이를 색출하던 현실의 탐정 유불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유불란에게 주어진 제국의 현실적 근거는 그의 죽음을 견인하던 원인이었다. 끝내 유불란은 김내성이 해방 이후 추리소설과 결별하게 되면서, 사라지는 캐릭터가 되고 만다. (주제어: 추리소설, 탐정, 유불란, 취미, 연애, 계몽, 국민되기, 대동아공영권, 의사-제국주체)

1. 김내성의 추리소설과 유불란

현대 미국의 범죄수사물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관통하는 ‘재미’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사건이 예측 불가능한 실마리들의 조합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보는 것’에 있다. 재미의 핵심은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놓여 있으며, 해결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지던 시점의 국면들을 매우 리얼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시청자를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전지적 ‘목격자’로 전유한다. CG를 동원한 현란한 스펙터클은 시청자에게 전능한 목격자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요청된다.

그런데 이렇게 ‘시각적 자극’을 통해 시청자의 ‘이상’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의 퍼즐을 섬세하게 풀어가는 ‘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씬시티(sin city)’를 정화하기 위해 나날이 지능화 되는 범죄자들과 싸우며, 각종 첨단 과학을 이용하여 결정적 증거들을 복원하고 확보하고 종합한다. 이를 함께 수행하는 과학수사대의 팀원들이 있지만, 그들은 반장의 지위 아래 각자의 임무를 다하면 될 뿐이다. 따라서 반장은 ‘명석함’과 ‘포용력’을 캐릭터의 두 축으로 두고 시리즈에 따라 약간씩 모습을 달리하여 등장한다.

CSI 과학수사대의 반장은 현대판 탐정과도 같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리로 불가해한 사건을 해결하는 서시는 여전히 대중을 사로잡고 있으며 매체

를 바꿔 영상물, 그것도 대중의 일상에서 소비되는 TV시리즈로 지속적인 생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반장이 국가적 기관에서 탐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탐정은 사적(私的)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민간의 차원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 차이는 사실상 탐정이라는 캐릭터 표현에 일정한 자유를 허락한다는 점에서 추리소설이 지닌 또 다른 매력의 원천이 된다. 이브 피테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 조사자(탐정)는 흔히 이익과는 관련 없는 딜레탕트하고 식견 있는 애호가일 경우가 많다. 독창적이고 가끔은 한가하게 여겨지는 사건 조사자는 자주 경찰 제도의 틀 밖에서 활동한다. 그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들을 이유로 우월하거나 혹은 그렇다고 느¹⁾킨다.

에드거 앨런 포의 뒤팽,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크리스티의 에르퀼 뱌와로, 엘리러 퀴의 엘리러 퀴 등은 딜레탕트한 탐정취미로 천재적 활동상을 보여주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다. 심지어 모리스 르블랑이 창조한 괴도(怪盜) 아르센 뤼팽은 간혹 스스로 탐정으로 변신해 공권력의 힘을 무화시키며 추리소설이 지닌 딜레탕트한 면을 강화시킨다. 이것이 ‘탐정’을 정점으로 한 추리소설의 매력이라면, 식민지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에 추리소설²⁾을 전파한 김내성의 명탐정 ‘유불란(劉不亂)’도 간과될 수 없는 조선적 탐정의 모델로서 그가 생산한 일련의 추리소설들에 대한 논의에서 흥미롭게 다루어져야 할 인물이다. 탐정이라는 직업이 전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조선적 상황에서 탄생한

1) 이브 피테르, 『추리소설』, 김경현 역, 문학과지성사, 2000, 93~94쪽.

2) 이 글의 전체적 서술에서는 탐정소설보다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탐정소설이라는 용어는 추리소설이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되던 메이지 말기에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08년 12월 4일 『제국신문』에 연재된 이해조의 소설 <쌍옥적>에 ‘덩탐소설’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을 시작으로 1930년대에 이르러 김내성이 ‘탐정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착되었다(송덕호, 「추리소설의 유형」,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33쪽 참조) 전체적 서술에서는 보다 포괄적 의미를 지닌 추리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김내성에 의한 명명법이 강조되는 지점에서는 ‘탐정소설’ 내지는 ‘소년소녀탐정소설’ 등 그의 용어를 따라 가도록 한다. 이는 특정한 지점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서술방식이다.

유불란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은 어떠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김내성의 추리소설에 대한 논의가 유불란이라는 인물에 대한 독립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불란은 김내성의 추리소설 도처에서 발견된다. 김내성이 자신의 필명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불란’이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이후³⁾, 초기작 <탐정소설가의 살인>(1935년 12월)⁴⁾에서부터 소설 속 인물로 유불란을 전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내성의 최고 걸작으로 인정되고 있는 <마인>(1939년, 『조선일보』에 연재)에서부터 아동추리물 <백가면>(1937년, 『소년』지에 연재), <황금굴>(1937년, 『동아일보』에 연재), <황금박쥐>(1955년, 『학원』에 연재), 그리고 일제 말기의 스페이물 <태풍>(1942년, 『매일신보』에 연재)과 <매국노>(1943년, 『신시대』지에 연재)에 이르기까지 유불란은 폭넓게 등장하고 있다. 이는 김내성의 전체 추리소설의 약 33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차지한다. 또한 내용적으로 모두 수수께끼의 제사-해결의 구조를 갖춘 ‘本格’ 추리소설에 해당한다.⁵⁾ 김내성은本格 추리소설이 인간성의 묘사를 배제시키는 특정한 틀을 서사의 기본구조

-
- 3) 김내성은 일본 유학(와세다대학 법학부) 당시, 일문 추리소설 <橢圓形の鏡>을 일본 추리소설 전문잡지 『푸로필』(1935년 3월)에 실어 데뷔한 이후, 그해 9월 『모던 일본』에 입선한 <奇譚繼文往來>라는 소설에 처음으로 ‘유불란’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 4) <탐정소설가의 살인>은 당시 『푸로필』에 일문으로 게재되었고 김내성 귀국 후 1937년 2월 13일에서 3월 21일까지 <가상범인>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다. 2009년 잡지 『판타스틱』 봄호에 김내성 특집이 기획됨에 따라 <탐정소설가의 살인>이 한국어로 번역·게재되었다. 따라서 1935년에 나왔던 원작의 전모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작과 조선어 각색본이 기본 서사는 공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장면이나 인물형에 있어서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두 텍스트는 이러한 점에서 완전히 같은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혜영의 논문 「김내성과 탐정문학 일제시대 창작 작품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학회, 2006, 405~433쪽)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적 상황을 전제로 각색된 <가상범인>을 주요 텍스트로 놓고 필요한 부분에 <탐정소설가의 살인>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 5) 김내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년 3월호.

로 취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변격에 대한 지향을 밝히기도 했으나, 실제로 대중은 유불란이 등장하는 본격 계열의 작품들에 반응했다. <마인>, <백가면>, <태풍> 등의 폭발적인 인기는 이를 증명한다.⁶⁾

따라서 김내성의 작품에 등장하는 유불란은 대중들의 상상 속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들은 김내성이 이끄는 대로, 탐정 유불란의 탄생에서부터 명탐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마인> 사건을 계기로 하여 주은몽과의 연애로 ‘탐정폐업’을 선언한 이후 또 다시 이본느에게 끌려 백상도 사건에 개입하는 그의 은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⁷⁾ 이에 걸맞게 서양식 모자와 안경, 단장은 그의 필수품이었으며 서양인처럼 ‘큰 카’에 동양인임을 자랑하는 ‘빛나는 눈’은 유불란이라는 인물형을 표상했다.⁸⁾ 1955년 <황금박쥐> 이야기 속 아이들은 이러한 유불란을 두고 “백가면 사건, 황금굴 사건, 마인 사건 같은 것을 척척 해결하신 선생님인데 박쥐같은 건 문제도 안 된”⁹⁾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렇듯 김내성은 유불란이 등장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그것 자체로, 유불란이라는 명탐정의 캐릭터 완성을 위한 전거로 삼았다. 각각의 작품들은 유불란을 매개로 하여 선형적(linear)인 질서를 만들고 있으며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유불란의 사건 해결력은 더욱 수위를 높여 갔다. 이렇게 명탐정을 주

6) <마인>은 조선일보에 인기리에 연재된 후 1939년 12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단행본은 해방될 때까지 5년 만에 18판까지 팔렸으며 한국전쟁 직후에는 30판이 넘어질 정도였다. 또한 <백가면>은 『소년』지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연재가 끝나자마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백가면』은 김내성의 첫 번째 단행본이다. 그런가 하면 <태풍> 역시 연재 당시에 대단한 인기를 끌었으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후 초판 8천부가 1개월 만에 매진되기도 했다. 김내성은 <태풍>의 성공 이후 6,600원의 값을 치르고 성북동에 집을 샀다. 비로소 셋방살이를 면하는 순간이었다.(조영암, 『아인 김내성 약전』, 『진주탐-김내성 번안 소설』, 현대문학, 2009, 539쪽.)

7) 김내성, <태풍> 2회, 『매일신보』, 1942년 11월 22일.

8) 김내성, <태풍> 1회, 『매일신보』, 1942년 11월 21일.

9) 김내성, 『황금박쥐』, 학원사, 1957, 71쪽.

인공으로 둔 자신의 소설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묶는 방식은 서양의 추리소설 작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으로서, 특히 모리스 르블랑의 경우 아르센 뤼팽 전집을 통해 그의 출생과 비밀스런 수련의 과정, 괴도가 되고 난 이후의 행적들을 각각의 작품 속에 편린처럼 심어 놓아 그 전체가 하나의 뤼팽을 형성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주지하다시피, ‘유블란’이라는 이름은 ‘모리스 르블랑’을 일본식으로 음차한 것으로서 이는 김내성이 『푸로필』에 데뷔할 무렵(1935년) 이미 일본의 대표적인 탐정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던 ‘에도가와 람포’(江戸川亂歩)가 ‘에드거 앨런 포우’를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 필명으로 삼았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블란은, 서구의 추리소설 작가에 대한 오판주로서 서양에 기원을 둔 일본적 명명법에 의해 탄생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한 조선인의 감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태생적인 이중성이, 일련의 작품들에서 종합되는 유블란 캐릭터가 지닌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 이중성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태풍>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유블란은 외면적으로 서양의 장식품들로 치장된 서양인의 체구를 지니고 있었지만 ‘빛나는 눈’으로 상징되는 이성의 힘은 동양적인 것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도식화한다면, 유블란은 서양적 외모에 동양적 기지를 갖춘 인물이었다. 자신의 탐정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유연애 사상을 실현하고 박물취미를 갖고 있던 유블란은 딜레탕트한 천재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가 서양적인 면모의 핵심이라면, 아이들을 훈육하는 아버지 혹은 대동아 공영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대리자의 이미지는 의사-제국주체로서 동양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유블란의 이와 같은 이중성은 김내성의 본격 추리소설 계열의 작품들에 내장되어 있는 “숨은 저의”¹⁰⁾를 관통하는 요소라고

10)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92쪽. 맑스주의 경제학자인 에르네스트 만델은 추리소설이 “숨은 저의가 있는 주시위 놀이”라고 정의한다. 추리소설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탐정의 조사로 ‘정의’가 승리하고 ‘범인’이 패

생각되며, 이는 곧 김내성의 시대를 향한 욕망이 가감 없이 관찰되는 장을 제 공할 것이라 전망된다.

2. 유불란의 탄생: ‘취미’에서 ‘직업’으로

2-1. 탄생과 갱생

<가상범인>(1937)이 시작될 때 유불란은 아직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탐정취미를 가진 ‘탐정소설가’였다. 그리고 그는 소설 제목과 동일한 탐정극 <가상범인> 공연에 대한 기괴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이 직접 쓰고 직접 출연한 <가상범인>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남편 박영민을 살해한 범인으로 몰린 사랑하는 여인 이몽란의 무고함을 밝히는 대신 연적 나용귀의 유죄를 밝히는 목적의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추리로 만들어진 공연의 극본은 그러므로 단순히 극적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대로 유불란과 연관된 소설 속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었고, 유불란에 의해 추리된 대로 정리된 소설의 이상적 현실이었다. 천재적인 의성(擬聲) 가능자인 범인 나용귀가 이몽란의 목소리를 흉내 내어 그 남편인 박영민을 살해한 것처럼 꾸몄다는 탐정극의 극적 현실은, 대중이 보기에 놀랄 만큼 정교한 추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탐정극 <가상범인>이 끝날 즈음 나용귀가 결국 범인임을 자백하자, 대중들은 소설 속 현실과 극적 현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탐정소설가 유불란이 탐정 유불란으로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김내성의 유불란은 이렇게 탐정이 되었다. 그가 소설가에서 탐정이 된 것

배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추리소설이 사유재산과 법과 질서가 인간의 삶과 불행에 따른 대가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승리를 거둔다는 “숨은 저약”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은, 직접적으로 애인 이몽란 때문이었다. 애인이었던 자신을 버리고 배우에 대한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해왕좌의 좌장 박영민을 선택한 이몽란이었지만, 유불란은 이몽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추리로 현실을 재구성하고 나용귀를 범인으로 내세웠다. 유불란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았고 동시에 이몽란의 결백을 믿었기에, 확고부동한 자신의 ‘이성’에 의해 재구성된 극적 현실이 그대로 현실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에는 이성의 힘 이외에도 나용귀의 “괴인과 같이 흉악하고 짐승과 같이 더러운”¹¹⁾ 외모가 작용했다. 인간의 악마성이 시각적인 것과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인식이 유불란을 지배했던 것이다. 탐정으로서의 탄생 즈음의 유불란은 자신의 이성을 정점에 두고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 다소 치기어린 탐정이었다. 악이란 “자유로운 의식과 만나 그 의식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의 이름”¹²⁾임을 깨닫지 못했다. 따라서 유불란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탐정으로 탄생한 상태였지만, 불완전한 탐정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었다.

유불란은 <가상범인> 공연 후 탐정으로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게 된 자신을 “태서명작”에 소개되던 서양 명탐정의 반열에 스스로 올려놓는다. 뉘퐁, 홈즈, 루콕 등의 이름을 떠올리며, 탐정이 된 자신을 그들의 이미지 안에서 상상한다.¹³⁾ 유불란의 이미지는 이렇게 처음으로 그 구체적인 형상 속에서 제시된다. 김내성은 유불란의 탐정적 정체성을 서양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명탐정의 그것과 등가에 놓았다. ‘이성의 힘’을 표상하는 탐정은 그 당시 김내성에게 조선적인 것으로 연상될 수 없었고, 이에 대한 초월적 모델인 서양 탐정들이 그 자리를 곧바로 차지했다. 이성-근대-서양-탐정은 유불란의 정체성을

11) 김내성, <가상범인>, 『괴기의 화집』, 청운사, 1952, 174쪽.

12) 뉘디저 자프란스키,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곽정연 역, 문예출판사, 2002, 12쪽.

13) “하여튼 유불란은 유쾌하기가 짝이 없었다. 마치 탐정소설과도 같이 흥미있는 탐정 노리가 아닌가! 사실, 그때의 유불란으로 말하면, 한개의 탐정소설가라는 것 보다는 하나의 명탐정이라는 의식이 더한층 굳세었다. 태서명작에 나오는 유명한 탐정의 이름이 다음으로 다음으로 머리에 떠올랐다.”(김내성, <가상범인>, 위의 책, 218~219쪽.)

결정짓는 인자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유불란이라는 인물은 서양의 탐정을 모방한다기보다, 빈 공간으로 존재하는 ‘조선적’ ‘탐정’의 자리를 채워 버리는 서양의 탐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불란은 아직 불완전한 탐정이었다. 그의 불완전성은 무엇보다도 탐정을 탐정·노릇’으로, 즉 ‘취미’로 생각했던 유불란의 태도에 있었다. 유불란이 나용귀의 시주를 받은 ‘OO복수단’¹⁴⁾의 함정에 걸려들어 부지 불식간에 이몽관 살해를 향해 나아가는 대목은 그의 탐정취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

그때 불란의 발머리는 누가 부르는듯이 책방 「선영각 안으로 비틀거리며 드러났다. 별로히 책을 사려고 드러간 것은 아니었으나 대산가티 싸노흔 서적을 이것저것 뒤적거리는 것이 그의 버릇이며 또한 취미였다.¹⁵⁾

그 남자는 잠간동안 서적이 가득하니 끼여있는 선반을 이리저리 휘둘러보더니 장갑인 손을 외투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아페 나란이 끼여있는 전집물을 한책 빼내었다. 「하하! 탐정소설에 취미를 가진 분이로군!」

하고 불란은 자기가 탐정소설가인만큼 일종의 호기심과 친밀한 정의를 마음속에 느꼈든 것이다. 그것은 일본탐정소설의 대가 「애도가와, 람보 의 「황금가면 이라는 무서운 탐정소설이었다.¹⁶⁾ (강조·필자)

천정환·이용남의 논의에 따르면, 1920년대 중반 이후 ‘독서’라는 행위는 중요한 ‘취미’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러한 점에서 ‘교양’과 ‘취미’는 유사한 덕목으로 개발·보급되어야 할 가치였다.¹⁷⁾ 취미의 개념적 변천을 보

14) 작품 안에서 OO복수단은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복수를 서로서로 협력하여서 수행하”는 단체로 등장한다. 나용귀는 연적 유불란이 자신의 죄과를 연극으로 밝히며 전격적으로 싸움을 걸어오자, 몰래 OO복수단에 가입하여 유불란이 이몽관을 직접 죽이는 복수의 방식을 의뢰했다. 시주를 받은 OO복수단이 유불란의 탐정취미를 이용하여 그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15) <가상법인>, 『조선일보』, 1937년 3월 2일.

16) <가상법인>, 『조선일보』, 1937년 3월 3일.

면, 1900년대 잡지 등에서 ‘흥미, 관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1920년대 이후에는 “확대된 교양의 보급과 대중문화에 의해 재맥락화”되었다.¹⁸⁾ 1930년대가 되면 취미가 계급 계층의 문제로 분화되며 사적·미적·내면적인 가치로 굳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전제한다면, 유불란은 독서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탐정소설 읽기를 독서행위의 중심에 놓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탐정소설에 대한 취미는 자신을 교양인으로 표상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유불란에게, 동일한 취미를 보유하고 있는 타자 ‘그 남자’는 그 취미를 매개로 공통된 교양을 갖춘 ‘친밀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남자’가 선택한 에도가와 람포의 소설은 유불란의 취미가 생성된 계층적·문화적 기반과 조응할 수 있었다. 나용귀를 대신한 OO복수단의 복수는 이렇듯 유불란의 탐정취미를 이용한 주도면밀한 것이었다.

유불란은 탐정취미를 교양인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갖고 있었다. 여기에 겹쳐서 그의 불완전성을 가속화시킨 ‘연애’라는 감정적 맥락은 유불란에게 완벽한 추리와 이성적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적 나용귀에 대한 질투는 결국 이몽란을 살해하는 근본 원인이었다. 몽환 속에서 자신과 이몽란을 돈 호세와 카르멘과의 유비관계로 놓은 유불란은 몽환의 극점에서 OO복수단의 협박을 받으며 결국 이몽란을 살해했고, 그 이후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진다. 나용귀의 범행을 정확하게 추리해 낸 작품 초반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유불란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진다.

이러한 유불란을 ‘구원’한 것은 백검사의 추리였는데, 이로써 박영민 살해와 OO복수단의 살인유죄 전체의 배후에 놓여 있던 나용귀의 범행은 완전히 밝혀진다. 작품의 후반에 등장하는 백검사는 유불란을 압도하는 완전한 탐정

17)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250쪽.

18)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화사연구』 30, 민족문화사학회, 2006, 263쪽.

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는 범죄 수사에서 ‘물증’을 사용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으며 그 물증에 내재되어 있는 범인의 심리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유불란이 취미로 즐겼던 탐정노릇은 종결된다. 이성을 발동시킬 줄 알았던 교양인 유불란은 연애를 삭제하고 자이분열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취미가 아닌 직업적 탐정으로 거듭난다. 이후 유불란은 교양인으로서의 우월감보다는 직업적 냉정함을 갖추게 되고 그의 추리는 결론을 향해 더 정교하게 움직이게 된다.

유불란은 이렇게 <가상범인>에서 탐정으로 탄생하고 갱생한다. 그는 ‘혼종적’인 탐정이었다. 서양탐정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그의 몸은 조선적인 문화 안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탐정취미와 관련된 ‘취미’라는 개념도 서구나 일본에는 실재하지만 조선에는 없는 ‘문명’과 관련된 것으로서 시작되었기에, 완전히 조선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웠다.¹⁹⁾ 또한 그는 연애하는 탐정이었다. 르블랑의 괴도 루팡이 세련되고 섬세한 연애를 즐겼던 것처럼, 유불란에게 따라다니는 연애의 에피소드는 그를 세련된 근대적(서양적) 캐릭터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연애는 ‘탐정’ 유불란에게 치명적인 결함을 안겨주는 요소이기도 했다.

2-2. 과학과 이성, 그리고 연애

<마인>은 캐릭터와 서사의 특징 상, 유불란을 탄생시킨 <가상범인>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두 작품에서 모두 유불란은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고 그에게는 애인이 있고(이몽란·주은몽), 서사는 유불란과 애인 사이의 애욕갈

19) 김내성은 『조선일보』에 <탐정소설가의 살인>을 <가상범인>으로 번역·각색하면서 유불란과 이몽란의 연애 에피소드를 강화했다. 정혜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에피소드는 일본의 <금색야차>를 번안한 <장한몽>의 서사를 상기시킨다.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회, 2006, 417~419쪽 참조) 유불란에게 새롭게 부가된 연애의 에피소드도 일본에서 수입된 이야기의 틀 안에서 취택되고 있다.

등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애육갈등에는 유불란을 교란시키는 연적(나용귀, 오상억)이 존재하고 결국 그 연적은 악귀에 가까운 범인으로 판명된다.

그런데 <마인>에 오면 유불란은 갑자기 “조선이 낳은 세계적 명탐정”²⁰⁾이 된다. 물론 유불란은 탄생 이후 일련의 이동추리물을 거치며 캐릭터를 발전시켜 갔지만 <마인>은 그 시작부터 직업적 탐정의 모습을 갖춘 유불란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활동영역을 ‘세계’로 확장시키며 그의 활약을 ‘세계범죄사’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품 <마인>에 대한 김내성의 욕망은 애초에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 따라서 <마인>에 등장하는 경성은 1930년대의 실제 경성이 아니라 서양의 추리소설에 등장할 법한 모더니티의 도시이며 인물들도 이국취미를 갖고 있다.²¹⁾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혼종적인 모습으로 탄생한 유불란은 <마인>에 오면 특정한 행동패턴과 이미지를 보여주며 김내성의 이러한 욕망을 반영한다. 김내성의 욕망은 작품의 배경인 조선의 조선적인 것을 지우고 이국적인 틀을 이식하여 <마인>을 서양의 것과 필적할만한 조선의 새로운 탐정소설 모델로 만들어 놓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계를 대타항으로 놓은 <마인>의 유불란은 <가상범인>의 유불란보다 서구적으로 진일보해 있으며 구체적이다. 그의 정체는 몇 가지 회로를 따라 묘사된다. 첫째,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이다. 작품 속에서 유불란은 종종 타자의 시선에 의해 묘사되고 평가된다. 이들 타자는 유불란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로서, 작품 안에서 유불란과 함께 사건에 뛰어들든 탐정적 인물들임세훈 경부와 오상억이다. 유불란은 이들이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묘사되고 그에 따라 유불란의 정체는 복합적으로

20) 김내성, <마인>, 『김내성 대표문학 전집』, 삼성출판사, 1983, 6쪽.

21) 서양 추리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파리나 런던처럼 묘사된 <마인>의 경성을 논한 글로는 진봉관, 「<마인>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009년 봄호, 210~229쪽을 참고할 수 있다.

주조된다.

작품 속 임경부는 조선인으로서 경찰의 고위직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유불란에게 직업적으로 강렬한 경쟁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둘 사이에 얽혀 있는 전사(前史)가 작용했다. 임경부는 <마인> 사건 이전에 이미 벌어졌던 ‘아파트 살인사건’·‘M 테아트’의 쇼걸 살인사건에서 유불란의 수사력에 쫓고 그것을 자신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사립탐정에 대한 공권력의 패배로 인식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유불란에게 “탐정이란 결국 발을 놀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놀리는 것”²²⁾이라는 모욕을 듣자, 그 이후 임경부는 유불란을 ‘교만한 놈’, ‘비상한 상상력과 민첩한 관찰력을 지닌 자’라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경부의 시각으로 묘사되는 유불란은 치밀함과 냉정함을 지닌 전형적인 탐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지적 활동’으로 안개에 싸인 사건의 퍼즐을 풀어가는 홈즈식의 모델과 별반 다르지 않다.²³⁾

그런데 유불란의 또 다른 경쟁상대인 오상역은 유불란에 대하여 임경부와 전혀 다른 평가를 내 놓는다. 그는 임경부와 달리 유불란과 사적(私的)으로 얽힌 연적 관계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의 시선은 연애 경쟁자로서의 ‘질투’를 매개로 초점화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묘사되는 유불란도 마치 연애소설의 주인공처럼 등장한다. 그는 ‘해월’ 사건의 발단에서 사건을 교묘하게 비트는 역할을 했던 유불란의 다중적 정체성을 ‘△△일보’에 ‘논문’의 형식으로 고발

22) 김내성, <마인>, 『김내성대표문학전집 5』, 삼성문화사, 1983, 130쪽.

23) 탐정소설의 이론과 창작의 양면을 모두 담당하며 그 둘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했던 김내성은 탐정소설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 대중 탐정소설로서 예를 들어 모리스 르블랑의 괴도 뫼랑 이야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퍼즐 탐정소설로서 김내성은 이를 ‘이지적 활동만으로 퍼즐을 해결하는 이성문학’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도일의 홈스 이야기, 따인의 반스 이야기, 퀴인의 퀴인 이야기 등이 있다. 셋째, 문학작(예술작) 탐정소설로서 포오의 <얏사키의 몰락>, <흑묘>, <말하는 심장> 등과 웨스터튼의 작품들이 있다.(김내성, 『해해』, 『괴기의 화집』, 1952, 286쪽 참조) 김내성의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임경부의 시선에 의해 묘사되는 유불란은 두 번째 계열의 탐정소설에 존재하는 탐정 캐릭터와 닮아 있다.

한다. 그 논문 내용 속의 유불란은 주은몽과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배신으로 괴로워하는 한 남자일 따름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애를 ‘가리기’ 위하여, 정확히 말해서 ‘연애하는 탐정’의 정체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유불란은 김수일이 선배로 ‘변장’한다. 변장된 김수일이 선배는 주은몽에 대한 순정으로 가득한 ‘예술가’들이다. 그리고 그 ‘들’에게는 이중인격 취미로 표상되는 ‘탐정취미’가 있다. 변장을 지우고 예술가의 탈을 벗으면 유불란은 자신의 직업과 연애 사이에 놓인 간극으로 한없이 고민하는 나약한 남자가 된다. 따라서 이 맥락의 유불란은 가면무도회에서 뒤펡으로 변장했던 ‘이선배’의 지향이 보여주었듯, 연애를 인생의 화두에 놓고 탐정 ‘직업’을 혐오하는 르블랑식 캐릭터의 모델과 닮아 있다.²⁴⁾

<마인>의 유불란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극점-과학/이성 vs 연애에 놓인 탐정 캐릭터이다. 그리고 그 극점을 왕복하면서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한다. 그가 ‘해월’ 사건이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대중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뛰어들면서 심지어 여타의 사건에 비해 스스로 해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갈등의 밀도를 반영한다.

유불란이 묘사되는 또 다른 회로는 작품 속 사건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마련된다. ‘해월’ 사건은 유불란이 등장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기 전까지 ‘반복되는 수사학’ 속에 던져져 있었다. 항상 피해자(처럼 그려지는) 주은몽과 함께 있는 듯하지만 실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해월의 범행패턴 때문에 사건은 미술적이고 기이하고 신기하고 유령적인 것으로 언급된다. 작품 속에서 이 사건이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보도된’ 범행 현장

24) 따라서 김내성의 앞선 탐정소설 분류방식에 의하면, 이러한 이미지는 대중 탐정소설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내성의 <마인>을 논했던 다수의 연구자들은 연애와 연관된 작품의 감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김내성에게 변격 탐정소설로 나아가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 주장한다.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마인』』, 『현대문학이론연구』 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윤정현, 『김내성 탐정소설 연구-〈마인〉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9.)

만을 경험하는 대중들의 호기심 속에서 사건은 더욱 부풀려진다. “사실 우리들은 이번 사건에서 과학과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²⁵⁾라고 고백한 임경부의 언술은 이 사건을 논평하기 위해 반복되던 수사학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유불란은 이와 정반대로 ‘해월은 하나의 인간이지 귀신이 아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²⁶⁾ 그리고 결국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언급되고 상상되던 해월 사건을, 백가와 엄가의 누대에 걸친 가족사에 얽힌 ‘복수’와 관련된 물리적인 사건으로 풀어낸다. 다시 말해, 현대의 문명과 과학을 유린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주은몽=해월과 오성억에 의해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범죄의 하나일 뿐임을 증명해 낸다. 이 과정 속에서 유불란은 자신이 믿는 과학과 이성의 힘은 결국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신념을 철저히 실현시킨다. 그리고 “탐정은 모름지기 ‘리얼리스트’여야 한다. ‘로맨티스트’여서는 아니 된다.”²⁷⁾, “그렇다! 탐정이란 결코 연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연애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내다보는 시력을 빼앗는 것이다.”²⁸⁾라고 부르짖으며 또 다시 스스로에게서 낭만화된 공간-연애를 삭제한다. 이로써 유불란에게 내장되어 있던 흠즈식의 모델과 르블랑식의 모델 중 후자는 패퇴하게 되고, 세계는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해석·이해될 수 있다는 근대적 세계관이 노정된다.

이 지점에서 유불란은 김내성이 애초에 내세웠던, ‘세계’를 향한 <마인>의 지향점을 구현하는 인물이 된다. 김내성은 서양의 초월적 모델들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간의 삶과 세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근대적 신념을 내면화·공식화 하고 있는 대중소설로서의 탐정소설”²⁹⁾의 관념을 조선 땅에서 실험하고 실현하려

25) 김내성, <마인>, 『김내성대표문학전집 5』, 삼성문화사, 1983, 74쪽.

26) 김내성, <마인>, 『김내성대표문학전집 5』, 삼성문화사, 1983, 345쪽.

27) 김내성, <마인>, 『김내성대표문학전집 5』, 삼성문화사, 1983, 266쪽.

28) 김내성, <마인>, 『김내성대표문학전집 5』, 삼성문화사, 1983, 327쪽.

29)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107쪽.

했다. 유불란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물리적인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연애를 다시 한 번 삭제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감내하면서, 이러한 관념을 실현시키는 명탐정이었다. 따라서 유불란이 자유자재로 미국의 사립탐정 존 피터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든가 에피소드는 이러한 욕망의 질서 속에서 그다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3. 유불란과 아이들: 대문자 아버지와 새로운 국민

김내성은 <가상범인>을 조선일보에 연재한 후 연이어 두 편의 아동추리물을 내 놓는다. ‘탐정모험소설’이라는 장르명을 단 <백가면>(『소년』, 1937.6~1938.5)과 ‘탐정소설’이라는 표제를 사용한 <황금굴>(『동아일보』, 1937.11.1~1937.12.31)이 그것이다.³⁰⁾ <마인> 이전의 일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작품이 각각 ‘스파이물’과 ‘보물섬류’로 경향을 다소 달리하면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이 발발했던 해에 함께 창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두 편의 작품은 공히 ‘아동’을 주요독자로 하는 ‘소년소녀추리물’이었다. 이와 같은 외적인 사실들 즉, 조선을 병참기지로 하던 시기에 국민학교 이상의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탐정소설이 창작되었다는 것은 작품이 정치적으로 긴박되어 있던 지점에 대한 독해를 필요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작품에 모두 ‘탐정’의 외관을 입고 등장하던 유불란은 당시 교육에 내장되어 있던 이데올로기를 소년소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키는 훈육의 주체, 대문자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작품들

30) 이 글에서는 원전을 바탕으로 하여 1951년에 평범사에서 출간된 『백가면』 판본과 1971년 아리랑사에서 출간된 『황금굴』을 텍스트로 삼는다. <백가면>은 『소년』지에 연재된 후 1938년에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첫 출간되었고, <황금굴>은 『동아일보』 연재 후 1944년 조선출판사에서 첫 출간되었다.

에서 묘사되던 ‘연애하는 탐정’의 모습과 다른, ‘교육하는 탐정’으로서의 모습이다. 르블랑에게서 다소 벗어난 유불란의 이러한 경직된 이미지는 대동아공영권의 수호자로 등장하는 이후의 계열(<태풍>, <매국노>)로 변화하기 전 단계에 놓여 있으며 특히 <백가면>은 ‘스파이물’이라는 점에서 뒤의 두 작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³¹⁾

3-1. 인자한 아저씨=보호자, 해결사

유불란은 탄생 즈음 ‘탐정취미’를 갖고 있던 교양인, 탐정소설가였다. <가상범인>과 커다란 시차를 갖고 있지 않은 <백가면>의 유불란도 역시 탐정소설가로서 탐정노릇을 하고 있었다. 다만 연애에 함몰되어 강렬한 정념으로 가득했던 모습 대신, 조선 외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박한 옆집 아저씨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 (가) 「수길야, 너는 유선생님을 언젠가 길거리에서 한번 뵈은 적이 있지?」
「저 유불란(劉不亂) 선생님 말인가?」
「그래그래 탐정소설가 유불란선생님 말이다.」
「알구말구! 접대두 라디오로 재미나는 탐정소설 이야기를 방송하셨지?」³²⁾

(나) 유불란 선생은 아직 독신이었습니다. 선생이 어쩌나 재주가 있고 탐정을 잘 하는지 그것은 저번 동경경시청에서 돈을 얼마든지 드릴터이니 와서 일일쯤 보아달라는 편지를 받은 것만 보아도 짐작할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실상으로 탐정노릇을 하는것 보다도 한가히 집에 앉아서 재미나는 탐정소설을 쓰는것이 더 취미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선생은 또 어린 소년소녀들을 매우 귀여워하고 사랑하시어서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도 선생님을 몰으는애가 없었으며 공일날마다 선생은 아이들을 자기 집에 모

31) 1955년에 창작된 <황금박쥐>는 시기적으로 김내성 작품전반에서 돌출적인 작품이어서, 현 단계의 논의에서는 제외시켰다. 이후 결론에서 일정한 맥락을 따라 서술·보강될 것이다.

32) 김내성, <백가면>, 『소년』 1937년 7월, 38쪽.

이놓고 서양, 동양 할것없이 재미나는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하여주는것이었습니다.³³⁾ (강조-필자)

인용문 (나)에서 묘사되는 유불란은 <마인>의 유불란과 닮아 있다. 시작부터 명탐정으로 등극해 있던 <마인>에서처럼, <백가면>에서도 유불란은 이미 그 유명세를 일본으로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불란은 자신의 재능을 ‘실상’에 사용하지 않고 ‘소설’적 현실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기를 즐겨한다. 소설적 현실은 그의 탐정취미를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며 그가 원하는 대로 창조될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조선에서는 이러한 그의 ‘취미’를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흡수하여 판타지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반면(가), 일본에서는 그의 ‘탐정기질’이 ‘실상’에 흡수되길 원한다는 지점이다(나). 여기에서 유불란의 탐정은 사실상 어떤 공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일본에서 필요한 것이었지, 조선에서 확보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이면에서 ‘발언’된다. 이때의 유불란은 따라서 중앙(일본)과 지방(조선)에서 각각 정체를 달리하는 탐정/소설가로 등장한다. 이러한 정치적 발언의 공간은 1951년 평범사본에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환되어 있다. 탐정 유불란을 원하는 주체가 일본 대신 미국으로 바뀌어서 김내성의 시선이 일본 제국에서 세계-미국으로 확장·변화되어 있다. 이는 <마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불란을 ‘태서’의 초월적 탐정모델들과 동등하게 창조하려는 김내성의 욕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태서-그들’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그들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를 확보해 보려는 욕망의 반영으로 읽힌다. 이러한 이중적 욕망은 조선적인 탐정이 부재한 현실상황 앞에서 ‘상상된 전제’로서, 김내성은 이를 작품 중심 서사의 앞부분에 위치시킴으로써 유불란이 주인공 강수길과 박대준·소년들, 그리고 예상 독자층인 소년소녀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도록 만든다.

33) 김내성, <백가면>, 『소년』 1937년 7월, 38~39쪽.

이러한 신임 속에서 유불란에게는 ‘어린 소년 소녀들’을 사랑하는 ‘인자한 아저씨’의 이미지가 부가되어 있다. 유불란은 미성년의 소년소녀들을 사랑한 나머지 각종 이야기들을 자주 들려주는 친구와 같은 대상으로 존재하며,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따라서 유불란은 소설가로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인 동시에, 세계에서 인정받는 탐정으로서 존경되었다. 교양인/탐정이었던 탄생 즈음의 탐정취미는 이로써 이야기꾼/탐정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며, 이는 이 작품에서 유불란이 아동물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는 요소가 된다.

<황금굴>의 유불란도 <백가면>의 유불란과 비슷한 자질을 갖고 있다. 유불란은 소년소녀들과 함께 백희 아버지의 유언 “부처상을 잘 공경하고 위하면 조선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된다.”-을 지키기 위해 인도양 적도 아래에 있는 (상상의 섬) ‘계룡도’로 떠난다. 유불란은 그들과 함께 위험한 모험을 수 없이 감행하며 부처상의 지시에 따라 결국 보물을 찾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다. 이로써 ‘고아원’에서 불행하게 생활하던 소년소녀들의 일상이 전환되어 그들 안에서 삶에 대한 ‘희망’이 발견되고 그것이 가능태로 현현하는 순간이 도래한다. 절박한 상황을 소년소녀들과 함께 하는 유불란은 그들에게 역시 ‘인자한 아저씨’인 것이다.

이러한 자질을 공유하면서 <황금굴>의 유불란은 <백가면>에서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황금굴>의 유불란은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취미’를 내세우기 보다는 직업적 탐정으로서의 모습을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유불란은 ‘변장’을 일종의 탐정취미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미인>의 경우처럼 일상의 취미라기보다 사건 해결을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

(가) 백희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은 변장을 잘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렇게 신통하게도 똑같이 변장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유불란 탐정은 기필코 학준이를 구해 내리라 백희는 굳게 굳게 믿었습니다.³⁴⁾

(나) 유 탐정의 설명을 들어 보니 학준이와 백희도 무척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찌
면 유 탐정은 저렇게도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을까?.... 하고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
다.**³⁵⁾ (강조·필자)

(가)는 유불란이 백희 아버지의 유품인 구리 부처상을 노리는 인도의 도적들과 대항하기 위하여 백희와 고아원 원장이 유불란을 방문하기 전부터 이미 인도인 ‘변장’을 연습한 결과를 보여준다. 느닷없이 유불란의 변장을 경험한 백희는 그 ‘완벽함’을 보고 유불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변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서, “인간 중심의 경험적·합리적 사고”³⁶⁾를 명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변장은 유불란이 사건 해결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다.

또한 부처상의 귀 안에 들어 있던 암호를 해독하는 유불란의 능력은 학준이와 백희에게 또 한 번 신뢰를 가져다주어서, 그들은 유불란의 명석한 두뇌를 감탄하게 된다(나). 이들이 감탄하는 것은 유불란의 탐정자질, 즉 이성의 활동 능력이다. 유불란의 그것은 학준이와 백희(소년소녀)가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서, 감탄 이후 부러움을 자아낸다.³⁷⁾ 유불란의 이와 같은 탐정자질은 그가 인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bilingual]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고아원 원장에 의해 확인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1937년에 거의 동시에 창작된 소년소녀추리물에서 유불란은 이렇게 ‘인자한 아저씨’를 핵심 이미지로 두고 소설가탐정 사이를 왕래한다. 이러한 차이

34) 김내성, 『한국소년소녀추리모험소설선집: 황금굴』, 아리랑사, 1971, 36쪽.

35) 김내성, 『한국소년소녀추리모험소설선집: 황금굴』, 아리랑사, 1971, 63쪽.

36) 정준식, 「초기설화의 변장 모티프 수용양상-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14집, 한국문화회, 1993, 123쪽.

37) 이러한 심정적 부러움이 발전하여, 1955년 <황금박쥐>의 주인공인 문철, 학길(소년들은 유불란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 유불란을 모방하는 것-소년 탐정되기로 나아간다.

는 유불란이 <백가면>과 <황금굴>에서 수행하는 기능상 구별되는 지점과 결부되어 있다. 유불란은 사건이 벌어지고 아이들에 의해 개입이 요청된 후, 전자에서는 ‘보호자’의 기능을 후자에서는 ‘해결사’의 기능을 강화하며 서사의 전면에 나선다. 두 작품은 각각 ‘아버지 찾기’와 ‘보물찾기’를 서사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유불란은 주인공 소년소녀들의 모험과 여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아버지’와 ‘보물’을 찾도록 도와준다.

<백가면>에서 유불란은 정치적 이유로 납치당한 강영제 박사(강수길의 아버지)와 어느 날 갑자기 인도양에서 해적에게 실종된 박지용(백가면, 박대준의 아버지)³⁸⁾을 찾기까지, 아이들의 아버지를 대신하다가 그들을 아버지들에게 인도한다.³⁹⁾ <황금굴>의 유불란은 보물섬류의 전형적 서사 장치인, 보물을 찾는 과정에 매복해 있는 각종 위기를 주도적으로 극복하는 주체로서 유능한 해결사의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공히 유불란은 이성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년소녀들과 함께 ‘모험’하는 주체가 된다. 즉, 소년소녀들을 도와주는 ‘행동하는 탐장’이 된다. 행동에 차이가 있다면, <백가면>의 유불란이 육박전에 다소 소극적인 반면, <황금굴>에서는 직접 적을 살해하고 인도인으로 ‘변장’하여 ‘적’의 소굴로 들어가는 적극적인 행동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탐장’이 왜 모험소설과 결합된 것일까? 즉, 김내성은 어떠한 이유로 유불란을 소녀소녀들과 함께 모험하게 만

38) 박대준의 아버지 박지용은 해외에서 상업활동을 하다가 인도양에서 실종되어 소설에서 부재된 채로 있었다. 그러다 그는 적성국가의 스파이와 대결하는 희대의 영웅, 백가면으로 돌아온다. 백가면이 박지용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박대준의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는 순간이 된다.

39) 최애순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1930년대 국내 ‘모험탐정소설’의 특징은 잃어버린 누군가를 찾아내려는 것이라 주장한다. “잃어버린 가족 혹은 친구, 그도 아니면 애인을 찾는 것이 목적인 탐정소설 유형은 이미 방정환부터 시작하여, 채만식의 『엄마』에까지 이어지는 한국 탐정소설의 특징”이라고 설명한다.(최애순, 「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가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 44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14쪽.)

들었으며, 모험의 결과로 찾았던 ‘아버지’와 ‘보물’은 소년소녀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견인하는 대상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작품에 내장되어 있는 판타지 이편의 세계, 즉 김내성의 현실인식을 환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3-2. ‘국민’으로 호명하는 주체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내성이 인식했던 ‘소년’에 대한 관념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김내성은 ‘어린이’ 혹은 ‘청년’ 담론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소년’ 담론과 다층적으로 얽혀들던 1920-30년대의 미성년에 대한 근대 기획과 별개로, 최남선이 이끈 근대계몽기의 ‘소년’ 담론에 발을 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900년대의 ‘소년’은 국가 존폐의 비상시국에 외세의 침탈을 막아내고 힘 있는 문명국가를 건설할 새로운 주체, ‘국민’의 한 분자로 ‘발견’되었다.⁴⁰⁾ 따라서 이들은 “당대적 열망에 부합되는 새로운 인간형, 신인(新人)으로서의 강건하고 진취적인 자질들”⁴¹⁾속에서 가시화되었다. 그 자질들이란 강직한 의지와 진취적인 기상, 강인한 정신력, 육체적 건강함, 용기 등이었고, 소년은 이러한 자질을 갖춘 영웅으로 자주 묘사되곤 했다.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기획은 새로 발견된 국민-소년에 대한 미래적 전망과 합치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의 이미지들은 1910년대 합병 이후에는 거의 사라져서, ‘소년’이 ‘청년’과 분리되면서 더 어린 연령의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가 됨과 동시에 강하고 힘찬 남성적 이미지들도 탈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0년대에 곱고 아름다운 미성년을 가리키는 ‘어린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동의 세계 자체를 ‘미’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년’은 근대계몽기의 맥락을 따라 대중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였다. 김내성의 소년 관념

40)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 29쪽.

41) 조은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05, 31쪽.

은 바로 이 지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대계몽기의 소년보다는 어리고 어린이와 비슷한 연령대에 놓인, 그러나 당대의 어린이와 달리 진취적 자질을 소유하도록 계몽되어야 할 존재가 김내성의 ‘소년’ 관념이었다. <백가면>, <황금굴>의 주인공인 수길과 대준, 그리고 학준과 백희가 보여주는 불굴의 의지,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용감무쌍함과 용기, 부상을 참아내는 강한 정신력, 목표한 바를 이루는 기상 등은 그러한 관념에 의해 만들어진 자질일 것이다.⁴²⁾

김내성의 소년소녀들은 가장 소중한 것-아버지, 아버지의 유품/보물-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겪은 후, 유불란에게 사건해결을 요청한다. 따라서 서사는 유불란이 등장한 이후 일정하게 ‘계획된’ 방향으로 흐른다. ‘인자한 아저씨’의 이미지를 덧입은 탐정 유불란은 사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소년소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은 제공된 정보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 결국 아버지를 되찾고 보물을 찾는다는 결말은 서사의 장르적 본질에 의거하여 선형적으로 선취되어야 할 방향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은 필연적으로 서사의 전면에서 삭제되는 대상 즉, 사건을 일으킨 주체들의 삭제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이후 도래할 행복한 미

42) <백가면>과 <황금굴> 모두에서 김내성은 서술적 화자로 자주 등장한다. <백가면>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나는 인제부터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슬프고 눈물나는, 그런 불쌍하고도 가련한 이야기보다도 용감하고 무시무시하게 무섭고 자릿자릿하게 마음이 안타깝고 양손에 굳은 땀을 쥐여가면서 읽어야 할, 그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줄로 믿고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내성은 소년소녀들이 재미를 느낄 법한 서사의 종류를 미리 한정지어 놓고 시작하고 있다. 즉, 용감함, 공포, 긴장 등의 정서가 들어 있는 서사가 그들에게 재미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서사의 틀 안에서 ‘소년’의 어리고 아름다운 자질은 들어올 여지가 없다. 또한 <황금굴>의 주인공인 학준에 대한 첫 번째 묘사를 보자. “그는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은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싸울 뿐만 아니라, 약하고 옳은 자를 도와주고, 강하고 나쁜 자를 용서치 않고 부셔대는 의용심(義勇心)이 남보다 한층 더 굳세었습니다.”(김내성, <황금굴>, 『동아일보』, 1937년 11월 1일자.)라고 되어 있다. 진취적 기상과 관련된 수사들로 가득하다.

래에 대한 전망이 결말까지 도달하는 과정 중에서 상상된다. <백가면>의 경우 삭제되는 주체는 ‘스파이’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1937년 『소년』에 실린 판본에서 이들은 ‘중국인’이었고, 1951년 평범사에서 출판된 개작본에서는 ‘적성국가의 외국인’으로 변모한다는 사실이다. 그 어느 경우도 그들이 ‘조선’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들은 강영제 박사를 노린다. 정확히 말해, 강박사의 발명품인 ‘이상하고 신통하고 무서운 기계’의 원리를 적어 놓은 비밀수첩을 강탈하려 한다. 그 기계는 ‘지남철의 원리를 이용하여 쇠를 잡아당기는 기계’로서, 1951년 판본에서는 ‘아세아에서 실현시키고 있는 그 기계의 가공할 파괴력을 두려워한 적성국가의 시선이 작품 안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사구조에서, 소년소녀들에게는 조선인이 아닌 ‘제국의 주체’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마련된다. 아버지를 찾는 행위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되찾는 행위이자, 전쟁에 사용될 무기를 보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작’을 무찌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인과 적성국가의 외국인으로 설정된 ‘작’들은,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며 대동아의 신질서를 건설하려는 일본제국의 적이었다.⁴³⁾

이러한 관점에서 유불란은 그들을 이러한 제국의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이

43) <백가면>의 이러한 구도와 관련하여, 김효식의 <전쟁노름>(1941년)이라는 아동물의 세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아동이 전쟁놀이를 통해 전쟁을 일상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김화선, 「대동아공영권의 전쟁동원론과 병사의 탄생」, 『인문학연구』 31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30쪽.) 이 작품의 다음과 같은 장면은 <백가면>의 숨은 의도와 겹쳐지는 부분으로서 흥미롭다. “우리들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산기슭에서 전쟁연습을 합니다. 우리동리에서 학교까지 십리인데 갈대에는 마리손을 하고 올때에도 마리손을 해서 오다가는 마을에서 이리가랑 떠러진 산에서 연습을하는것입니다..... 전에는 「넛썩」과 「지나」라는 파를갈라서 싸웠는데선생님이 영국과미국에 선전포고를하였다고 하여 우리들은 「지나」를 떼어버리고 「양코」라고일흥으로고쳤습니다.”(김효식, <전쟁노름>, 『매일신보』, 1941년 12월 21일,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강조 필자)

며, ‘아버지’를 위협하는 적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된다. <백가면>에서 유불란은 실종되었던 박대준의 아버지인 박지용=백가면의 활약에 비해 육박전에서 미미한 활약을 보인다. 기실 유불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신출귀몰한 영웅 백가면만으로 스파이의 암약은 중단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란이 존재하는 것은, 함께 모험을 하면서 그에 의해 해석되는 세계의 이데올로기가 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소년들은 이러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계몽되어야 할 새로운 제국의 ‘국민’이었고, 유불란은 이들에게 ‘대문자 아버지’와 같았다.

<황금굴>은 <백가면>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색채가 다소 약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황금굴>에서 제거되어야 할 주체들은 보물을 노리는 ‘인도인 도적들’이었다. 사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암호로 알려주고 있는 백희 아버지의 유품-구리 부처상-은 원래 인도인 왕족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그 유품과 더불어 보물까지 ‘인도인’의 것이었다. 그런데 유불란과 소년소녀들은 그 보물이 인도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다. 그들이 인도인이기 이전에 ‘도적’이라는 점, 즉 윤리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금굴>에서는 인도인 도적에게 보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그것이 조선인에게 발견되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게 된다. 김내성은 그것을 ‘착한 사람들’이 하는 ‘구휼사업’으로 설정해 놓는다. 작품의 소년소녀들이 고아인 것은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강화시킨다. 작품 속에서 보물이 ‘고아원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주인공-고아의 입을 통해 강조되는 순간, 주인공이 자신의 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종의 동정을 자아내며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갖는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외피는 서술적 화자의 입을 빌린

44) 이러한 ‘정치적 발안’과 관련하여 1937년 『동아일보』 판본과 이후의 판본들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흥미롭다. 『동아일보』 판본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물이 ‘구휼사업’에 사용될 것이라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

김내성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의해 당시의 현실을 강력하게 환기하게 된다.

훌륭한 고아원을 세우자! 부모 없는 애, 배고픈 애, 학교 못가는 애! 그런 애들을 죄다 데려다가 기르고, 공부를 시켜서 장래에 훌륭하고 씩씩한 사람들을 만들자! 아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⁴⁵⁾

1930년대 고아에 대한 구휼담론은 민족주의 담론의 자장 안에 있었던 1920년대적 상황과 달랐다.⁴⁶⁾ 그것은 식민지배의 한 양상으로서, 국가의 개입을 통한 규율과 통제 그리고 감화의 방식으로 추진되어갔다. 고아는 일련의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은 일제의 강력한 행정력 아래 ‘국민’으로 강제 호명되었다. 따라서 그들을 장래에 “훌륭하고 씩씩한 사람들”로 만들자는 위의 구호는 장차 전쟁에 사용될 ‘국민’으로 전환된 후 부여될 그들의 자질을 가리키는 말과 같다. 김내성에게 이는 ‘아름다운 일’이었다. 그리고 유불란은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탐정’의 옷을 입고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존재였다. 백희에게 인도인 도적을 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총으로 쏘아 죽인 후, “재미있지, 백희야?”라고 물어보는 <황금굴>의 유불란은 매우 과장된 포즈로 그들을 훈육하며 ‘국민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여기까지 논의를 진행시키면 김내성의 ‘소년관념’은 단순히 근대계몽기의

한 1971년 이리당사 판본에는 여기에 ‘국방헌금’이라는 사용처가 추가되어 있다. 즉, 보물이 ‘국방헌금’과 ‘구휼사업’에 사용될 것이라 백희와 확준에 의해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이다. 김내성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작품에 ‘국방헌금’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맥락을 첨가하며 의도를 노골화시켰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는 국방헌금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다. 1937년 이후의 『조선일보』 기사를 확인해 보면, 읍내유지, 노과, 퇴직 순사 등 다양한 조선인들이 전국각지에서 끊임없이 국방헌금을 내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5) 김내성, <황금굴>, 『동아일보』 1937년 12월 31일.

46) 1930년대 구휼사업과 관련된 논의는 발표자가 속한 세미나팀에서 수행되었던 고선희 선생님의 <황금굴> 발제문의 아이디어에서 도움을 받았다.

맥락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이동에 대한 관념과 겹쳐지는 지점에 또한 서 있다. 두 작품에서 발견되는 소년소녀들의 의지, 용기, 정신력, 기상은 일제가 부여한 ‘교육된’ 식민지 아동의 모델과 그리 다르지 않다.⁴⁷⁾ 식민지 아동들에게 부여된 ‘좋은 일본인’의 상, 즉 새로운 ‘국민’의 상은 ‘모험’의 서사를 빌려 이렇게 표상되고 있었다. 낭만으로 가득한 서사에 ‘계몽’을 위한 교훈을 삽입하여 이상적 현실을 환기하는 방식이 아동서사물의 본질 중 하나라면, 유불란은 ‘일본적인 것’을 교훈으로 환기시키는 강력한 대문자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적 정체성은 이후에 선보일 의사-제국주체로 진화하는 과정 위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4. 유불란의 현실: 의사-제국주체로서 살아가기

김내성은 일제에 의해 대동아공영권이 주창되던 1940년대 초반, 두 편의 ‘방첩(防諜)⁴⁸⁾ 스파이소설’을 생산한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연재된 <태풍>(1942.11.21-1943.5.2)과 잡지 『신시대』에 연재되었다가 중단된 <매국노>(1943.7-1944.4, 총10회)가 그것이다.⁴⁹⁾ ‘방첩소설’이라는

47) 이병담, 『한국 근대 아동의 탄생』, 제이앤씨, 2007, 324~334쪽 참조

48) 1942년 8월 발간된 『춘추』지는 특별부록으로 내무성방첩협회에서 발행한 「국민방첩독본」을 게재했다.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방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방첩’이라고 하면 그저 ‘비밀을 새지안는것’, ‘외국인을 경계할것’ 등으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말 방첩은 결코 그런 간단한 것이 아니다. 비밀을 지킬이지 안는것도 물론방첩의 하나이며 전시하의 국민으로써 특히 주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방첩이 다 됐다고 안심하면 큰 실수다. ‘방첩’의 정의는 평시이고 전시임을 묻지 않고, ‘외국의 비밀전에 대한 국가를 방위하는 모든 행위’이다. 즉 관헌의 취제와 같이 일반국민으로서의 외국의 스파이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밀을 적히고 외국의 유해한 선전에 동침이 없이 모략에 싸와이어가는등, 무력전 이외의 외국의 비밀전공세에 대해서 아국가를 방어할것이 필요하다.”(「국민방첩독본」, 『춘추』, 1942년 8월, 207면.)

49) 중단된 <매국노> 10회의 마지막에는 “사정에 의해서 이하는 중단하기로 합니다.

장르 제명은 <매국노>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두 작품은 내용상 연작으로 묶일 수 있다.⁵⁰⁾ 따라서 두 작품은 작품의 전체 구조사건의 발생-스파이의 압약-유불란의 등장-스파이의 제거)에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스파이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의 처지가 달라서 서사를 구성하는 에피소드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소년소녀탐정소설인 <백가면>에서부터 시작된 김내성의 방첩 스파이물 창작은 이렇게 40년대로 오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으로 또 다시 유불란이 귀환하면서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보강되는 양상을 보인다. 『日本探偵小説の系譜』라는 글에서 에도가와 람포가 설명한 다음과 같은 ‘일본의 상황’은 김내성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1941년 이후] 문학은 오직 충군애국, 정의인도의 선전기관이 되는 바, 유희의 분자는 완전히 배제됨에 이르렀고 **세상의 독물은 무릇 신체제 일색이 되어 거의 재미를 잃게 되었다.** 탐정소설은 범죄를 다루는 유희소설인 바 가장 구체제적인 것으로서 **방첩의 스파이소설 외에는 각 잡지에서 사라졌으며** 탐정작가는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소설분야, 예컨대 과학소설, 전쟁소설, 스파이소설, 모험소설 등으로 바꾸는 자가 대부분이었다.⁵¹⁾ (강조-필자)

필자와 및 독자 여러분께 미안하기 짝이 없나이다.”(강조-필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50) 두 작품에서 유불란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일본인 이야기마 대위는 <매국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유불란씨, 삼년전 저 인도문화협회에서 우리들의 손으로 씨알없이 소탕하여 버렸던 적국의 간첩망이 그후 삼년간에 또 다시 그들의 미수를 펼쳤습니다.”(김내성, <매국노> 7회, 『신시대』, 1944년 1월, 127~128쪽.) 그가 언급하고 있는 ‘인도문화협회’의 간첩을 소탕하는 이야기는 <태풍>의 핵심서사로서, <매국노>의 작품 속 사건은 그 뒤를 이어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연작’의 성격을 띠는 소설적 현실 속에서 <태풍>과 <매국노>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태풍>이 완결된 후 두 달만에 <매국노>가 집필되기 시작한다.

51) “文学はひたすら忠君愛国、正義人道の宣伝機關たるべく、遊戯の分子は全く排除せらるるに至り、世の読物凡て新体制一色、殆ど面白味を失うに至る。探偵小説は犯罪を取扱ふ遊戯小説なるため、最も旧体制なれば、防諜のスパイ小説のほかは、諸雑誌よりその影をひそめ、探偵作家は夫々得意とする所に従い、

1940년 2차 고노에 내각의 출범과 함께 표방된 ‘신체제’는 총력전체제를 구축하며 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는 역사적 맥락을 만들었다.⁵²⁾ 이에 따라 ‘유희’를 다루는 ‘구체제’적인 문학은 사라지고 오로지 신체제를 내면화한 방첩의 스파이소설만 명맥을 잇게 되었다. 이는 일본의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김내성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이를 ‘특수’가 아닌 ‘보편’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유희란이 더 이상 ‘탐정취미’에 의한 변장을 즐기지 않고, 이에 따라 서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인물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김내성의 입장을 반영한다. 그에게 ‘유희’의 요소가 삭제되면서, 유희란은 강력한 일원적 정치체제에 포획되어 죽음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었다.

4-1. 아끼아마의 쌍생아

김내성의 작품 전반에서 유희란을 추적하다보면, 유희란과 경쟁 혹은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을 함께 관찰하게 된다. 유희란이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결국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무서운’ 존재를 단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⁵³⁾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존재를 함께 단죄하면서 스스로 유희란과 경쟁관계를 형성했던 <마인>의 ‘임세훈 경부’는 유희란만큼 김내성 추리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그의 주위를 맴돈다. <가상범인>에서도 유희란이 이몽란을 살해한 이후 나용귀의 결백을 주장하며 의기양양하게 등장했고, <백가면>에

別の小説分野、例えば科学小説、戦争小説、スパイ小説、冒険小説などに転じるものが大部分であった”(江戸川亂歩, 『日本探偵小説の系譜』, 『江戸川亂歩全集 第十九卷 續・幻影城』, 講談社, 1980, 223-224쪽.)

52) 정중현, 『사실, 과학, 그리고 문학의 신생-신체제기 한국 대중소설에 나타난 ‘기술적’ 주체와 문학의 재편』, 『상허학보』 23집, 상허학회, 2008, 50쪽 참조
53) 김내성의 추리소설 계열에서 ‘무서운’이라는 수사는 범죄사건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존재(혹은 대상)에 무한반복적으로 붙어있다. ‘무서운’이라는 수사로 표상되는 ‘공포’의 심연을 분석하는 것도 김내성 연구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도 공권력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나 임경부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작품에서 임경부는 유불란보다 신통치 못한 추리력을 보여주고 부하를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여, 사립탐정 유불란의 유능함을 오히려 돋보이게 해 주는 인물이었다. 전봉관은 이를 두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인 고위층 경찰이 독자들에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꾸며진’ 결과라고 말한다.⁵⁴⁾

이러한 의견은 <마인>을 단독으로 놓고 보면 타당하다. 그러나 김내성의 방첩 스파이물에 이르면 공권력을 갖고 같은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로써 종합적으로 새로운 관점이 요청된다. 그는 헌병대의 ‘아끼야마 대위’로서, 일본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유불란과 경쟁관계를 형성했던 조선인 임경부와 달리 일본인 아끼야마 대위는 그와 친분을 ‘과사’할 정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김내성 탐정소설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태풍>에서 처음 등장함) 유불란과의 친분은 소설 이전의 세계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태풍>에서 자신의 박물취미로 오랫동안 인도에 머물렀던 유불란은, 갑작스런 귀국 후 아끼야마 대위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고 왔음을 알린다. 그 보고는 유불란의 구미각국 유람이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첩보기관의 조직’과 ‘현재의 활동상태’를 조사해 달라는 아끼야마 대위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알려준다. 이때의 유불란은, <태풍>의 시작 지점에서 ‘마인 사건’을 계기로 탐정폐업을 선언했던 그의 전사가 언급되며 ‘쓰원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그의 무심함이 조명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몸이 대단히 피곤하오니 오늘은 이만 실례하고 후일 다시」

「아, 그러시는것이 조깅습니다. 하여튼 유불란씨의 그 풍부한 상상력과 세밀한 관

54) 전봉관, 「<마인>속 경성과 경성 문화」, 『판타스틱』 2009년 봄호, 220쪽.

질력은 유불란씨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민의 총력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의 것이니까,

「아끼아마 대위,」

하고 유불란은 대위의 손목을 두손으로 힘차게 잡았다.

「절대적 후원이 잇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서로 손을 잡고... 일로 스파이 단(團)의 박멸을 위하여,」⁵⁵⁾ (강조 필자)

<태풍> 서사의 저변에는 전체적으로 기묘한 정열과 흥분이 깔려 있다. ‘태풍’이라는 제목은 영·미에 의한 구체제가 몰라나고 동양일본에 의한 신질서가 “동아의 천자”⁵⁶⁾에 재편될 때의 새로운 에너지를 감각적으로 표상한다. 유불란이 아끼아마의 두 손을 ‘힘차게’ 잡는 행위는 그러한 에너지가 아끼아마에 의해 촉발되어 감격적으로 표출되는 행위이다. 아끼아마에게 유불란의 천재적인 탐정상은 국가에 복속되어 총력전체제를 수행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본인’상으로 번역되었고, 유불란은 그러한 번역방식에 감격했다. 둘의 친밀함은 이러한 정치적 관계를 매개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불란에게 이러한 관계 맺기의 방식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를 ‘일본인’으로 호명하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유불란과 아끼아마 대위는 그 후 스파이 색출과 박멸을 위해 일시분란하게 움직인다. <태풍>의 스파이들을 소탕한 이후, 그 둘은 <매국노>에 이르러 아예 ‘애국방첩협회’의 ‘협회장’과 ‘고문’으로 취임하여 제국의 현실적 지위를 갖게 된다.⁵⁷⁾ 유불란의 의사-제국주체적 정체성은 이로써 상상된 것이 아

55) 김내성, <태풍> 97회, 『매일신보』, 1943년 2월 27일.

56) 김내성, <태풍> 마지막회, 『매일신보』, 1943년 5월 2일. 여기서 ‘동아’는 ‘대동야’와 더불어 지리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적인 개념이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의 개시와 중국대륙 내부로의 전쟁 확대,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남방지역으로의 확전과 더불어 ‘구성단’ 개념이다.(교야스 노부쿠니, 『동아, 대동야, 동아시아』, 이승연 역, 역사비평사, 2006, 85쪽 참조)

57) 정혜영은 ‘애국방첩협회’가 1938년 8월 신민일체를 표방하며 실제로 설립된 ‘조선방공협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292쪽.)

닌, 현실적 근거를 얻는다. 그의 탐정은 이러한 현실적 지위를 근간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질서를 흐리는 매국노와 스파이를 색출하는 것, 즉 제국의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고착된다. 따라서 사립탐정 유불란은 신체체의 공권력을 대표하는 아끼아마 대위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고, 아끼아마의 쌍생아로 재탄생된다.⁵⁸⁾

따라서 이와 같은 유불란의 관계 맺기 방식은 그의 탐정적 지위를 둘러싼 조선인, 일본인 사이의 위계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조선인에게 유불란은 법 질서의 최고 수호자로서 그 스스로 강력한 이성의 힘을 대변했다. 제국의 법을 대리한다고 해도 그 주체가 조선인이라면, 유불란은 언제나 그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조선인-대리자의 ‘결여’를 드러냈다. 그러나 작품이 초월적인 법을 표상하는 자리에 조선인-대리자 대신 일본인-제국의 주체를 위치시키면, 유불란은 자신을 의사-제국의 주체로 전환시키면서 일본인-제국의 주체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느 행위에도 심연에는 제국의 신민, 조선인의 근본적인 ‘결여’가 자리하고 있다.

4-2. 경계와 구획짓기

<태풍>과 <매국노>에서 유불란에게 부여된 임무는 어떤 존재들을 ‘스

58) 김내성은 자신의 탐정소설 전반에서 ‘쌍생아 모티프’를 즐겨 사용한다. 탐정소설 작가 로날드 녹스는 ‘탐정소설 10계(Detective Decalogue)’에서 마지막 10번째 조항으로 “쌍둥이나 닮은 사람을 등장시킬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Julian Symons, *The Detective Story in Britain*, Longmans, 1962, p. 22, 조성면, 『대중문화와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94쪽에서 재인용.)라는 항목을 명문화했지만, 김내성에게는 오히려 쌍생아들이 복잡하게 얽힌 서사를 풀어주는 일종의 해결책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마인>의 결정적 한계라고 지적하는 ‘주은몽과 예쁜아’를 이용한 결말짓기, <태풍>의 주인공 백남도와 그의 쌍둥이 동생 백상호의 원한관계, 또한 <태풍>의 주요 서사를 형성하는 오창세-고준모의 바뀌치기 등은 모두 쌍생아 모티프를 활용한 ‘바뀌치기’의 기법이 사용된 예들이다. 이로써 서사는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국면으로 전개되거나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파이’로 소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 존재들의 ‘가면’을 벗기고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존재들의 정체를 ‘확정’짓는 일은, 부분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조합·추리하여 종합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탐정활동을 필요로 한다.

조선에서 스파이 담론은 1930년대 초반부터 유행했으나, 실제로 본격화된 것은 중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중일전쟁 이후 국민 방첩의 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대두된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시기 스파이 담론은 첩보 모략 범죄와 관련된 집단을 색출하고 “나쁜 일본인들, 가면을 쓴 일본인들, 문제적 정체성 그룹을 구별해내면서 좋고/나쁜 일본인의 경계를 구축하는 이데올로기” 그 자체였다.⁵⁹⁾ 아끼아마의 쌍생아, 유불란의 임무 수행 방향은 이러한 당대의 스파이 담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앞선 소년소녀탐정물보다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제국의 현실은 훨씬 꺾진하고 근본적일 수밖에 없었다.

<태풍>과 <매국노>에서 스파이들은 일본이 구상한 ‘대동아공영권’을 교란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작품 속에는 매우 다양한 국적의 스파이들이 등장하고 있고 표면적으로 강영제 박사의 ‘파괴광선’(〈태풍〉)과 오영세 박사의 ‘살인균’, 그리고 ‘고성능폭탄’(각각 <매국노>) 발명을 위시한 일본의 모든 기밀과 온갖 시설을 감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영국, 미국이 이끌어온 세계 구질서를 ‘대동아’라는 새로운 이념을 동원하여 재편하려고 했던 일본의 패권주의적 열망을 근본부터 무너트리려는 계획이 존재했다.

따라서 작품 속 스파이단은 주로 미국, 영국인들과 장개석 정권에 찬동하는 중국인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변장술에 능하고 자신의 정체를 절대로 노출하지 않는, 잘 훈련된 스파이들이다. 기령, <태풍>의 수령 ‘비밀제1호’는 처음부터 강영제 박사와 함께 파괴광선 연구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59) 권명아, 「여자 스파이단의 신화와 ‘좋은 일본인’ 되기」, 『동방학지』 130,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5, 307~314쪽 참조

있는 독일의 베크만 박사로 변장하고 유블란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기실 그는 영국의 스파이로서, 실제 서사의 주인공인 백상도의 불행을 견인한 배후의 인물, 미국인 브라운 선교사와 연합하여 구체제의 질서를 강력하게 수호하려 한다. 유블란은 자신에게 접근한 베크만 박사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초리’에서 정체를 ‘판별’할 실마리를 얻는다.

언젠가 「쓰윈 호 난간에서 베크만 박사가 노안경을 버서 「헨켓취 로 문질른 적이 잇엇던것을 유블란은 생각하였던것이다.(중략) 안경을 버슨 눈동자의 광채-그것은 「게르만 민족의 그 인내성을 띤 광채라기 보다도 차라리 「앵글로-색슨, 인의 자존심의 과잉(過剩)을 말하는 그것과도 가뒀다.

당연히 그째에 느꼈어야될 베크만 박사의 눈초리의 민족성(民族性)을 유블란은 비로소 다섯달 후인 오늘에 이르서야 깨달았던것이다.⁶⁰⁾ (강조·필자)

유블란이 직감했던 것은 베크만 박사의 ‘기운’이 가감 없이 노출하고 있는 민족적 특징이었다. 유블란은 그가 발산하는 ‘눈초리의 민족성’이라는 생물학적 기운에서, 대동아의 신질서가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앵글로 색슨의 과잉된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식론을 끌어낸다. 그것은 ‘상상된 관념’이었다. 그러나 당시 동양인·일본인이 서양인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인종적 배치가 제국 일본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작품 속에서 “모순되고 착종된 인종지도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심상지리”⁶¹⁾의 관계를 극복하려면 미·영의 민족성 내에 ‘나쁜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했다. ‘나쁜 피’에 대한 설화는 대동아의 새로운 블록 안에 포함된 ‘인도’를 점령하여, 일종의 유희로 인간(인종)사냥을 해 왔던 영국인 마킨레경의 에피소드에서 절정을 이룬다.

60) 김내성, <태풍>, 『매일신보』, 1943년 3월 8일.

61) 이상우,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大東亞)」, 『한국극예술연구』 27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185쪽.

<매국노>는 유불란이 사건에 투입되고 절정에 이를 때쯤 서사가 중단되어서 ‘수령’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 끝나버린다. 그러나 ‘흑색복면을 한 수령’과 ‘암흑박사’, 그리고 독일의 ‘니콜라이 신부’와의 연계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매국노>는 사실 또 다른 간첩 미스 엘리자의 활동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녀는 미국인 ‘여간첩’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조선에 들어와 이탈리아인 성악가(소프라노)로 행세하는 인물이다. 미스 엘리자는 여간첩의 전형적인 표상체계 안에서 묘사되면서, 여성에 대한 공포와 인종적 공포를 동시에 드러낸다.

아니, 그보다도 미스 엘리자의 피꼬리와 같은 소프라노를 이는 사람은 한층더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아직 삼십이 될락말락한 그의 방염한 육체를 연상할 것이며 지금 한창 활짝 피어난 환포기 다리야와도 같은 미모를 눈앞에 그림그릴것이다. 이렇듯 여러가지 매력적인 청춘을 한몸에 지닌 이국여성 미스 엘리자.⁶²⁾

중일전쟁 후 집중되던 스파이 담론은 여성 스파이들을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며, 외국어에 능하고 외국인과 친숙하게 지내며, 외국의 지식을 습득한 여성”으로, 또한 “미인이어서 세인의 주목을 받으며, 사교적이고, 성적 능력을 필두로 한 다양한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 묘사했다.⁶³⁾ 미스 엘리자도 자신의 ‘미모’와 ‘사교성’을 무기로 조선인을 구체체에 순응하는 매국노로 만들기도 하고, 천연히 중상모략을 저지르기도 한다. ‘적국 아메리카’의 여간첩 엘리자는 연재 중단으로 그 종말이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유불란에 의해 정체가 밝혀지면서 여자 스파이의 예정된 결말-처형, 학살, 투옥, 자살로 처리될 계획이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유불란의 수사에 의해 외국인 스파이의 정체가 노출되는 과정은 동시에

62) 김내성, <매국노>, 『신시대』, 1943년 7월, 166~167쪽.

63) 권명아, 「여자 스파이단의 신화와 ‘좋은 일본인’ 되기」, 『동방학지』 130, 연세대학교학연구원, 2005, 311쪽 참조.

‘나쁜 제국의 신민’을 걸러내는 작업을 동반한다. 브라운 선교사 일당에 의해 포획된 <태풍>의 백남도와 홍만호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들은 강영제 박사를 물적으로 후원하는 광산왕 오창세의 행보를 결과적으로 저지하는 일에 가담하게 된다. 서로 치정관계와 장자권 강탈이라는 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백남도의 형 백상도를 제거하는 일을 공모하면서, 이 둘은 사적으로 긴밀하게 연합하고 서사의 ‘악의 축’을 대변하는 행보를 이어간다.

추축국 스파이들의 정체를 밝히고 매국적 행위를 일삼는 제국의 신민을 색출하는 일은, 불확실한 존재들에 대한 정확한 구획과 경계를 그려내는 직업과 같다. 유불란의 이러한 임무는 제국 일본이 설파했던 ‘근대초극론’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의사 제국주체의 상상된 미래로 향한다. 개인사가 소거된 거대담론에 포획된 주체로서의 유불란은 ‘르블랑’의 옷을 벗고 동양적·일본적 인간으로 완전히 초점화된다. 백상도의 혼혈(hybrid)딸 이본느에게 본능적으로 매혹되면서도 ‘연애’의 공간을 이에 삭제한 유불란에게 죽음은 예정된 것이었다.

5. 유불란의 죽음과 추리소설과의 결별

김내성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추리소설과 점차 이별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작품경향을 바꿔 연애소설, 세태소설로 나아간다. 서양의 추리소설을 번안하여 굵직한 작품을 남기기도 했지만, 유불란의 모습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1955년에 창작된 <황금박쥐>에 유불란이 재등장하지만, 작품 자체가 <백기면>과 <황금굴>을 절묘하게 섞어서 ‘귀환’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유불란은 또 다시 이 작품에서 한국전쟁 후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소년 소녀들에게 훈육하는 주체, 그들을 ‘국민’이라 호명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 이데올로기는 ‘제국’의 것에서 ‘남한’의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황금박쥐>에서 발견될 보물은 소년소녀의 입을 통해, ‘전쟁고아’와 ‘상이군인’ 구

제에 사용될 것이라 이야기된다. 결국 <황금박쥐>는 ‘보물찾기’ 판타지 안에 전후 국민국가 건설의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국민되기’에 대한 계몽의 언설을 삽입한 이동물이 된다. 이것을 견인하는 유불란은 식민지 시기 소년소녀 탐정물에 등장하던 유불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의사-제국주체로 살아가던 유불란이 그 정체성을 바꾼 듯 보이지만, 언제나 그가 긴박되어 있던 것은 당대의 현실, 그것이였다. 그의 죽음, 직전의 일이었다.

에르네스트 만델은 추리소설에 대하여 “범죄나 폭력 그리고 살인을 다루지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해주는 문학”⁶⁴⁾이라고 말한다. 유불란이라는 한 탐정의 일생과 그의 정체를 놓고 볼 때, 김내성의 작품은 ‘사회통합’의 기능을 더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백가면>, <태풍>에 내면화되어 있던 이데올로기들은 당대인들의 폭발적 수요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을 것이다.

김내성은 ‘대중문학’이란 ‘자인(sein)’이 아닌 ‘졸렌(sollen)’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인’으로서의 대중문학은 어디까지나 독자대중의 문학적 위안을 위한 문학 ‘스토리’나 문장이나 묘사가 대중의 구미에 맞도록 평이하고 흥미분위로 제작되어 왔기 때문에 개중에는 독자의 문학적 교양보다도 뒤떨러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대중이 앞서고 작자가 뒤서는 격이 되는 작품이 불무(不無)하다. 여기서 대중문학의 소위 ‘졸렌’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대중문학이 가져야할 자태(姿態) 즉 앞으로의 대중문학은 어디까지나 「불행한 다수자 속에서 생활을 하되 그들에게 뒤서지 말고 언제든지 일보 전진하여 (이보만 전진하여도 불행한 그들은 숨이 가빠서 따라오지를 못한다) 대중의 문학적 교양을 끌어올려야만 하는 문학이래야 될 것이다.”⁶⁵⁾라고 설파했다.

64)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91쪽.

65) 김내성, 「대중문학과 순수문학-행복한 소수자와 불행한 다수자」, 『경향신문』 1948년 11월 9일.

김내성의 대중문학론은 대중들의 앞에 서서 그들의 ‘교양’을 선진화하는 관점에 놓여 있었다. 그가 자신의 추리소설에서 유불란을 등장시켜 그에게 ‘발언’의 공간을 배치하고, 서양의 초월적 모델의 정체를 덧입게 했던 것은 이와 같이 언제나 대중을 견인하는 입장에 있었던 지식인적 욕망에 기인한다. 여기에 당대와 교섭하는 ‘근대적’ 지식인에 대한 욕망은 유불란에게 ‘사회통합’의 기능을 강하게 부여했던 동기가 되었다. 근대의 과학, 이성, 계몽, 정의(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제국의 이상 등은 그에게 수호되어야 할 테제들이었다.

그러나 유불란은 이러한 테제들과 강력하게 접속되자, 존재의 기반을 점차 잃어 갔다. 그의 가장 매력적인 얼굴은 연애와 변장을 즐기며 끝없이 고민하는, 르블랑을 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내성, <탐정소설가의 살인>, 『판타스틱』 20, 2009년 봄호, 25~63쪽.
김내성, <가상범인>, 『조선일보』, 1937. 02. 13~03. 21.
김내성, <가상범인>, 『괴기의 화첩』, 청운사, 1952.
김내성, <마인>, 『김내성대표문학전집』, 삼성문화사, 1983.
김내성, <백가면>, 『소년』, 1936. 06~1938. 05.
김내성, 『백가면』, 평범사, 1951.
김내성, <황금굴>, 『동아일보』, 1937. 11. 01~1937. 12. 31.
김내성, <황금굴>, 『황금굴』, 아리랑사, 1971.
김내성, <태풍>, 『매일신보』, 1942. 11. 22~1943. 05. 02.
김내성, <매국노>, 『신시대』, 1943. 07~1944. 04.
김내성, 『황금박쥐』, 학원사, 1957.

2. 논문과 단행본

- 권명아, 「여자 스파이단의 신화와 ‘좋은 일본인’ 되기」, 『동방학지』 130, 연세대 국학 연구원, 2005, 305~332쪽.
김내성, 「세계대극장가풍경」, 『조광』, 1938년 6월호, 254~264쪽.
김창식, 「추리소설 형성기의 실상과 김내성의 『미인』」, 『현대문학이론연구』 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19~56쪽.
김희선, 「대동아공영권의 전쟁동원론과 병사의 탄생」, 『인문학연구』 31권 2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21~40쪽.
박진영, 「제국의 상상력에 대한 통쾌한 복수」, 『진주탑-김내성 탐정 번안 소설』, 현대문학, 2009, 545~562쪽.
오혜진, 「1930년대 추리소설의 존재방식에 관한 일고찰」, 『우리문학연구』 20, 2006, 319~343쪽.
윤정현, 「김내성 탐정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9, 195~214쪽.
이상우, 「심상지리로서의 대동아(大東亞)」, 『한국극예술연구』 27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163~ 201쪽.
정중현, 「사실, 과학 그리고 문학의 신생」, 『상허학보』 23, 상허학회, 2008, 47~82쪽.

- 정혜영, 「근대를 향한 왜곡된 시선」, 『현대소설연구』 31,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199~218쪽.
- 정혜영, 「김내성과 탐정문학-일제시대 창작 작품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6, 405~433쪽.
- 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 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연구회, 2008, 275~302쪽.
- 조영암, 「아인 김내성 약전」, 『진주탐-김내성 탐정 번안 소설』, 현대문학, 2009, 527~541쪽.
- 천정환, 「한국적 근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계몽주의 문학과 '재미'의 근대화」, 『역사비평』 2004년 봄호(통권 6호), 2004년 2월, 343~363쪽.
-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학사연구』 30, 민족문학사학회, 2006, 227~265쪽.
- 최애순, 「30년대 모험탐정소설과 김내성 『백기면』의 관계 연구」, 『동양학』 44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1~25쪽.
- 한용환, 「통합된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김내성 소설」, 『동양어문논집』 32, 동양어문학회, 1997, 361~377쪽.

『계간 판타스틱(fantastique)』 20, 2009년 봄호

대중문학연구회 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윤대석, 『식민지 근대문학론』, 역락, 2006.

조성면, 『대중문학과 정전에 대한 반역』, 소명출판, 2002.

고야스 노부쿠니,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이승연 역, 역사비평사, 2006.

뤼디거 자프란스키,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곽정연 역, 문예출판사, 2002.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이후, 2001.

江戸川亂歩, 「日本探偵小説の系譜」, 『江戸川亂歩 全集 第十九卷 續 玄影城』, 講談社, 1980.

Abstract

A Narrative of desire for being "modern intellectual"

- The identity of private detective Yu, Bul-Ran represented in Kim, Nea-Sung's detective novels -

Choi, Seung-Youn

Kim, Nea-Sung interestingly created the character, Yu, Bul-Ran(劉不亂) in his detective novels. Private detective Yu, Bul-Ran whose name was rooted in the name of famous French detective novel's writer "Maurice Leblanc", represents multi identities in many orthodox detective novels of Kim, Nea-Sung. At that time, there was not a private detective in Joseon and this fact made Kim, Nea-Sung not only consider the transcendental detective models depicted in the West detective novels for creating Yu, Bul-Ran, but also regard on the image of a detective being activ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condition of that time. Yu, Bul-Ran, therefore, was destined to be born as a hybrid detective from the birth.

At first, it seems that Yu, Bul-Ran is similar to Lupin created by Maurice Leblanc, who has the taste of disguise and is fond of loving. Although this identity covered with the image of Lupin would be seen as the most enchanted personality of Yu, Bul-Ran, he is shown as a representative of Japanese Imperialism when he starts to connect the real life of that time. The actual identities on this concept are as follows; Yu, Bul-Ran as a transcendental father for enlightening as well as educating the children of Joseon as a "Good Japanese", and as a subject of pseudo-imperialism who hunts up various spies for embodying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us, the political reality of Japanese Imperialism Yu, Bul-Ran has, can be proposed as a fundamental cause which pulls his death. As Kim, Nea-Sung breaking with the detective novels after the Independence, Yu, Bul-Ran disappeared from his stories. (key words: detective novel, a private detective, taste, love, enlightenment, being a nation,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subject of pseudo-imperialism)

▮ 위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